대체 뭘 백 배 결실하나?

(눅8:4-15)

4.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5.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6.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7.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9.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1.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 길 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13.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14.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중심으로 <대체 뭘 백 배 결실하나?>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8절 우리가 읽은 부분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말씀하

시고, 그 다음 9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설을 해 주십니다.
해설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결실을 하라! 결실을 해야 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엇을 백배로 결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까?
그냥 율법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적혀져 있는 율법을 그대로(문자대로) 행동해 나가는 것,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러면 이게 결실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목사님께서 '교회에 충성하면 복 받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교회에 충성했고 복 받으면 그러면 그게 결실을 한 것입니까?
결실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 한번 찾아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는 내용.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말이 씨가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읽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이 혼기가 꽉 찼습니다.
도대체 결혼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염려하던 중에 어느 날 남자 아이를 하나 데려와서 선을 보이는데, 아빠 마음에 전혀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딸아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재원으로 컸고 자랑으로 삼고 있는데 영~ 그 남자아이가 마음에 안 맞아서, 결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딸이 식음을 전폐하고 그 남자 아니면 안 된다고 아빠와 맞섭니다.
이때 아빠가 한 말이 있어요(딸에게).
'내 배에 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결혼 못한다' 이 말을 이 딸이 그 남자친구에게 했습니다.
저는 읽어내려 가면서 은근히 걱정을 했어요.
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결혼 못한다'
지금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청년이 또 뭐 칼 들고 와서 이 여자의 아버지를 찌른다 하는 그런 포악스러운 사건이 생겼었던 적이 있나 해서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 안 있어서 이 아빠가 대장암 증세를 나타냅니다.
그래 병원을 입원을 하게 돼서 10cm 장을 절제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그 남자아이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날마다 병원에 와 가지고, 간병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중에, 이 아빠가 그 남자아이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다고 하는 그런 해피 엔딩이에요.

하여간 말씀이 씨가 된다고 하는 예를 든 것이지요.
여기서 말씀이 씨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말한 대로 현실에 나타났다 이 얘기에요.
현실에 결실이 되었다.
사과 씨에서는 사과가 열매 맺혀지지 않습니까?
볍씨에서는 쌀이 열매 맺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을 말이 씨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말이에요.
말이 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씨입니다.
왜 말이 씨가 된다고 했냐하면 말한 것 중에 현실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있고 안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까 말이 씨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사람이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씨다, 그런데 그 씨가 열매 맺는 경우는 ¼ 밖에 없다.'

모든 말씀은 다 씨입니다. 그 속에 뭔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과 씨 안에 사과가 들어있는 것처럼, 볍씨 안에 쌀이 들어있는 것처럼 모~든 말씀 안에는 뭔가 내용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열매 맺혀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말 중에 씨가 되는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말은 다 씨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씨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느냐 이겁니다.
사과 씨 안에는 사과, 볍씨 안에는 쌀, 배추 씨 안에는 배추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서 도대체 그것을 열매 맺는 것이라고 말씀 하시느냐 이겁니다.
백배의 열매라는 것은 백배의 결실은 도대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결실이 되는 거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결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그걸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해설을 하신 부분을 가만히 보면 14절에 가시떨기 씨에 대한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이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렇게 표현된 말이 재미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생이라는 것은 죽기 전에 이쪽 세상을 말합니다.
죽은 다음의 세상을 저세상이라고 그래요 저세상.
우리가 저승이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적으로 저승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승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죽음너머의 세계에서는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지옥 저승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천국이 있습니다.
저세상의 반대되는 게 이세상입니다. 죽음 이쪽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염려' 이건 필수적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 이 생애에서 살고 있을 때에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가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을 가지려 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지므로 생의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필수적인 거예요.
또 이생의 향락이라 그랬는데, 번역을 향락이라 그랬지 그냥 영어로 말하자면 'Pleasure' 기쁨, 즐거움, 유쾌함.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일을 마음에 두고 염려하는 것, 이 세상 안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 세상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 다 이 세상에서 사는데 필수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이 세상에서 가치를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이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뭘까요?
이생의 염려 때문에 막히고, 이생의 가치 때문에 막히고, 이생의 기쁨 때문에 막히는 것이라 그러면, 저 세상에 있는 천국의 내용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맺혀져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생애에서 죽음 이전의 세계에서 죽음너머에 있는 천국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에요.
저세상에 있는 천국이니까, 이 세상의 염려를 할 때 천국에 대한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가치를 추구할 때 천국적 가치가 소멸되게 되고, 이 세상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니까 천국에 근거를 둔 기쁨이 소멸돼 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천국에 대한 생각과 천국에 대한 사랑, 천국의 가치, 천국에 근거를 둔 기쁨이 열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염려가 천국에 대한 생각을 없애버리고, 이 세상에서의 가치추구가 천국적 가치를 없애 버리고, 이 세상에서의 기쁨추구가 천국의 기쁨을 없애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 있는 그 세상이 죽음 이전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쁨으로 나타나고, 내가 좋아하는 가치로 나타나고, 내가 사랑해서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염려하는 대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밭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길가 밭!
사람들이 다녀서 밭 옆에 딱딱하게 된 부분.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아예 흙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묻히지를 못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 버리는 그런 길가 밭, 어떤 밭일까요?
우리가 어저께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빌어서 한번 이 네 밭을 우리가 이해해 봅니다.

길가 밭은 어떤 것이냐?
남자가 여자에게 대시를 합니다.
여자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아름다워서 저 여자와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대시를 하는데, 여자는 아예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지긋지긋해 합니다.
마음에 눈곱만큼도 들여놓을 여지가 없습니다.
단칼에 잘라버리고 1년 지나 2년 지나 3년이 지나서 대시를 해도 끝까지 싫어합니다.
바로 이게 길가 밭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지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안 맞는 대시인 것처럼 아예 접근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동네개가 웃을 소리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얘기하면, 천국이 지금 내가 이 생애에서 살고 있는 가운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적 헛소리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밭이 있어요.
말씀 드렸듯이 돌밭은 자갈밭이 아니라, 석회암층,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밭을 돌밭이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해가 나면 돌이 달구어지니까, 우리 돌판에다가 삼겹살 구워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돌이, 밑에 있는 석회암층이 달구어지게 될 때 다른 지역보다 더 흙이 따뜻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씨가 떨어져서 다른 지역보다 빨리 싹이 나게 되지만, 뿌리를 내리려고 뿌리가 내려가다가 돌에 막혀 가지고 물을 빨아들이지 못해서 곧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배반'이라는 말을 써요.
'잠깐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결혼은 현실이다라고 하는 말과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하자면 어떤 거냐 하면, 7년 동안 너무너무 좋아서 연애를 했습니다.
9년 동안 10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이혼하는 그런 케이스다 이겁니다.

천국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세상의 시련이 닥칠 때 그 천국을 가지고 이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의지해서, 그걸 자부심으로 삼고 그것에 마음의 처소를 삼아서, 이 세상의 시련을 뚫고 갈 수가 없고, 마음이 천국에 대해서 완전히 등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배반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등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수단이 되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목적은 딴 데 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이 세상 안에 이생의 목적이 따로 있고, 천국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수단이 되어버릴 때, 이 목적에 문제가 있게 되면 그 수단을 버리게 됩니다.
'이 수단 갖고는 내 목적을 이룰 수가 없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목적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갖고는 안 되겠구나 할 때 예수님 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시 밭.
이 경우는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말과 연관 지어 생각을 하면, 이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사사건건 싸웁니다, 사사건건.
돈 문제 때문에 바가지 긁고 싸우고, 자식 키우면서 싸우고, 날마다 밥해먹는 것 때문에 이 반찬이 좋아 저 반찬이 좋아 싸우고, 친정문제 때문에 싸우고, 옷 안 사준다 싸우고…
눈 떠서 잘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혼은 하지 않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소망은 천국에 있을 뿐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천국을 현실화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바쁩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가치추구와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기 위에서 천국은 저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시밭이라는 거예요.

절대 이혼은 하지 않아요, 절대 천국을 놓치는 않아요.
천국을 놓거나 포기하거나 잊어버리지는 않는데, 언제나 이 세상의 것이 먼저 인 경우.
이게 가시밭이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밭, 착한 밭은 무슨 밭입니까?
죽은 다음에나 갈 수 있는 천국이, 죽음 이전에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현실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없다는 상황보다 내 마음이 천국을 더 앞선 우선적인 현실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계신 그 천국을 가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말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천국을, 이 세상에서 염려하듯이 대신에 천국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 안에서 돈을 추구하고 이 세상 안에 있는 가치를 추구하듯이 천국을 갖고 싶어 하고 그리워합니다,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듯이 천국만이 기쁨의 이유인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되고, 실제로 그 천국이 기쁨의 이유가 돼서 기뻐하고, 그 천국이 나의 유일한 가치가 돼서, 거기서 가치 소유의 만족을 느끼고, 천국이 유일한 생각의 대상이 돼서, 천국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백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천국이 현실이 될 때에, 죽은 다음에나 갈 수 있는 천국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안으로 전달되면서, 말씀 안에 천국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 천국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선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내 말과 내 모든 행동들이 다 천국적인 말과 천국적인 행동으로 되어 버립니다.
바로 백배 이백 배의 결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씨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천국이 들어있는 겁니다, 천국이.
그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픈 내 몸이 제일 우선적인 현실입니다, 배우자의 문제가 현실이고, 가정의 문제가 현실이고, 독도문제가 현실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말씀 안에 담겨져 가지고, 말씀의 씨가 내게 뿌려졌을 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천국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 점점 더 커져서 큰 현실이 되어서, 심지어는 내 몸보다 앞선 현실이 됩니다.

이때 초대교회와 같은 순교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몸보다 앞선 현실이 될 때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스테반이 죽는 그 현장! 천국이 돌에 맞는 자기 몸보다 더 앞선 현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돌에 맞는 몸에 있으면 억울하고 분할 텐데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는 것이에요.
천국을 현실로 느끼고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혀진다는 얘기에요.

이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에요?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뭐가 믿음입니까?
내가 이생에서 천국을 가져야 된다, 천국이 나의 우선적인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생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천국을 받은 자들이 천국을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천국을 받아들인 자가 말씀을 들은 자라 그랬잖아요, 가시밭에서?
그 천국을 받아들인 자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이생에 대해서 염려, 이생에 대해서 가치를 추구, 이생에 대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인데, 그 가시를 막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이생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생에 대해서 죽어서 천국이 내 현실이 되면, 내 말과 행동에서 천국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생을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생에서 나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는 것, 이생에서 나로 하여금 갖고 싶어 하는 것, 이생에서 나로 하여금 기쁨의 이유로 삼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죽고, 오직 내 마음

이 천국으로 주님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백배의 천국결실이 이생에서 맺혀진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하루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생에 대해서 죽고, 천국이 열매 맺혀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생의 염려에 대해서, 이 생 안에서의 가치들에 대해서, 이 생 안에서 기쁨의 이유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해 주셔서, 들은 말씀 속에 들어있는 천국이 백배의 결실이 되어 나의 현실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